

경남지역 학교숲 조성 주체의 선호도 조사

Survey on the Preferences of School Forest Coordinator in Gyeongsangnam-Do

백재봉¹□최송현¹□민성환²□강현미³
부산대학교 조경학과¹□생태보전시민모임²□부산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³

I. 연구목적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면서 지구환경은 물론 도시 및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 3백만이 넘는 경상남도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구조로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적, 환경적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우 다각적인 방법으로 녹지를 확충하고, 농촌에서는 자연의 보전 및 환경친화형 산업 등을 육성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자연관 및 환경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돕는 '환경교육'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상남도의 경우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는 유형별 학교숲 가꾸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녹지는 대기의 정화, 맑은 산소의 공급, 정서순화의 공간, 야생 동□식물 서식처, 도시열섬화 방지, 도시미기후 조절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중요한 원리인 "환경 안에서의 환경교육"을 위한 훌륭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학교에 분포하는 녹지는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녹지의 한 형태로 쾌적한 도시 및 마을환경 창출을 위한 녹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환경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학교녹지는 환경교육을 위한 야외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학교녹지가 가지는 정서순화기능은 바람직한 교육분위기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 학교 숲(녹지) 조성과 관계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학교 숲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2003~2005년까지 녹색학교로 선정한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9개교 총 31개 학교의 학교 숲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설문에 응한 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26개교를 유효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의 기초 사항과 학교 숲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백분율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6.9%, 여성이 23.1%로 남자 교사가 학교 숲 업무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19.2%, 40대 34.6%, 50대 42.3%로 나타나 4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담당 교사의 식물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한 교사의 57.7%가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다.

2. 학교 숲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사항

학교 숲을 처음 가꾸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을 보면, 교사들의 47.8%가 학교 숲 설계 및 설계도 그리기를 가장 어려워했으며, 다음으로 계획서 작성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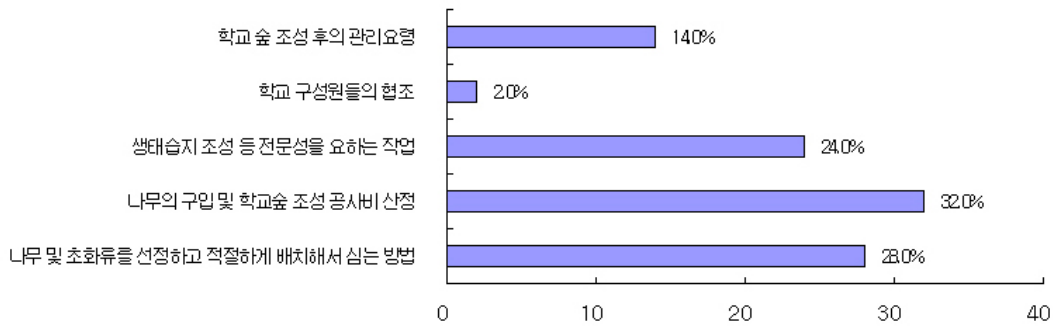


그림 1. 학교 숲을 처음 가꾸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학교 숲을 직접 만들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나무의 구입 및 학교 숲 조성 공사비 산정(32.0%), 나무 및 초화류를 선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서 심는 방법(28.0%), 생태습지 조성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24.0%)의 순으로 꼽았다.

학교의 어떤 땅에 학교 숲을 가꾸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면 담장따라 운동장 둘레로 숲을 가꾸고 있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단숲, 본관 건물 앞 화단이나 야생화 화단, 꽃밭, 향기원 그리고 중정원, 건물사이 화단 등 학교 숲을 가꾸는 위치는 다양하게 조사 되었다.

3. 학교 숲의 관리에 대한 사항

학교 숲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을 묻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잡초관리(30.8%)와 전정, 전지(23.1%), 가뭄과 물주기(23.1%)등을 어려워 하였다.

학교 숲 관리에서 학생활동, 자원봉사 등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부분은 가뭄과 물주기(30.8%)와 이름표, 안내판, 게시판(26.9%), 잡초관리(23.1%) 순으로 꼽았다.

학교 숲 관리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물어 보았을때 교사들은 이름표, 안내판, 게시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6.9% 가장 많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전정, 전지가 (23.1%)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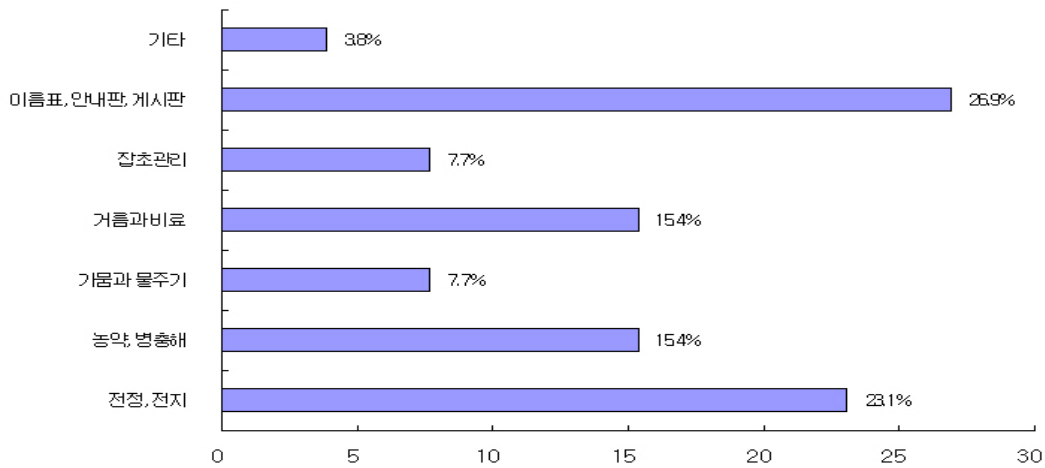


그림 2. 학교 숲 관리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교사들이 생각할 때 학교 숲 관리에서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전정, 전지 (46.2%)와 잡초관리(30.8%)로 답했다.

4. 학교 숲 활용에 대한 사항

학교에서 학교 숲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 숲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 숲 활용 교육프로그램 보급과 연수로 응답자의 47.6%가 답했으며, 다음으로 재량활동 교과서 개발과 교재, 교구, 수업지도안 개발을 꼽았다.

학교 숲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특별활동(35.7%)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23.8%)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학교 숲에 사용되는 나무와 초화류 중 자생종과 외래종을 어느 정도 비율로 심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것이 자생종이고 외래종인지 잘 모른다는 답이 38.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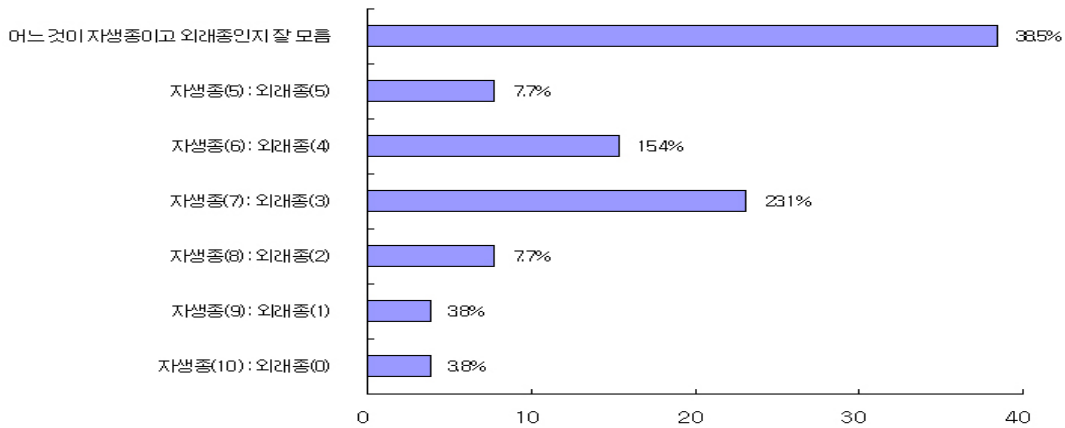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숲에 사용되는 나무와 초화류 중 자생종과 외래종의 비율

학교 숲 조성과 교육적 활용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형식이 좋을 지를 묻는 문항에 교사의 69.2%가 사진으로 순서대로 알기 쉽게 도해한 책을 꼽았다.

학교 숲을 가꾸면서 가장 알고 싶은 생물은 나무(46.2%)와 꽃(42.3%)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이면 가장 활용도가 높을 지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나 수첩형식(계절별 월별 자료와 개인 기록 보충형)의 자료를 선호하였다.

학교 숲 매뉴얼을 만든다면 가장 중심에 두고 많이 다루어야 할 내용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장소별 식재 수종과 조성방법을 선택하였다.

인 용 문 헌

(사)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2000) 학교 숲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40쪽.

부산광역시교육청(2004) 학교녹지 유형개발 및 관리방안. 208쪽.

경상남도교육청(2006) 학교숲만들기 매뉴얼개발 연구. 204쪽.